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섬기는 힘 성경: 마태복음 20장 20-28절

Tag: 섬김,건강,행복,신약성경,마태복음

20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23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24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25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20:20-28)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외가 친척이다.

이들은 요한과 야고보 형제다.

야고보는 우직하며 권력지향적이며, 여차하면 군사행동까지 실행에 옮길 준비를 갖춘 자이다.

아마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예수님께 좌의정과 우의정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 새로운 정권 창출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가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가문은 예수님을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운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명령할 것을 요청할 정도라면 아마 자금을 대는 집안의 어른으로서 마땅한 요구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 야고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을 찾아 뵙도록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스스로를 군사적 사령관으로 여기고 있었고, 군사적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승낙을 얻어낼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하였다. 야고보가 보기에 너무 몽상가스러운 말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셨다.

아마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을 간파하신 것 같다.

예수님은 대속적 죽음으로서의 잔을 의미하심.

그러나 야고보는 군사적 행동으로 인해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성으로 해석함.

용감한 야고보는 주군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개국공신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다.

2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계신다. 후일에 깨닫게 될 말을 지금 하는 것이다.

-아마 제자들은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지 모르겠지

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겠느냐? 라는 식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군사행동을 하면서 누가 죽게 될지 사실 모르지 않느냐는 식으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비슷하게 해석하고 분노하기 시작했다. 아마 어떤 제자는 자신에게는 돈도 백도 없다는 식으로 분노했을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25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세속권력을 초월하시는 듯이 말씀하심.-세속 권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님. 정치를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시는 것도 아님)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다른 장소에 제자들을 집결시킴. 교육 목적으로.

이방인의 집권자들;로마 총독들 로마 집권자들

임의로 주관함;갑질을 함.

권세를 부림;무력으로 행함. 섬김을 명함. 화폐를 발행하고, 세금을 부과함.

26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분명히 통치는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갑질이 아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주관자, 관리, 책임자,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거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섬기는 자가 어른임. 어른이 가장 많이 섬

김.

간혹가다가 처음에는 잘 섬기다가 후에 어떤 요직에 오르면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들도 있다.

우리 나라는 과거 양반 상놈 구분이 있어서 양반은 섬김을 받는 자, 상놈은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요즘도 섬김으로 서열을 가리는 자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렇지 않고,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우선이다. 섬기는 자가 더 배운 자이고, 더 가진 자이고, 더 건강한 자이고, 더 복 받은 자이고, 더 성숙한 자이고, 더 숙련된 자이다.

-지금도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돌보신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정원이고, 하나님은 우주의 정원사이시다.

-우주를 다스릴만한, 우주를 돌보실만한, 우주를 보살피실만한 힘이 있으시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성경의 가치관은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이다.

-아이가 어머니의 섬김을 받지만, 아이는 어머니를 하인 취급하지 않고 어머니를 높이며 존경하며 따른다.

-이것이 성경의 가치관이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 자녀라도 자기가 섬기지 않는다. 하인에게 주어 섬기게 한다.

27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당시에는 종들이 손님의 발을 씻어 주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스스로 종 됨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모범을 보이셨는데, 정치적인 인기를 끌기 위함이 아니셨다.

-교황의 행보와는 다르다.

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

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 예수님도 목적을 가지고 섬기셨다.
 - 예수님은 섬기실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 주셨다.
 -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셨다.
 -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건강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행복하다.
 -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 섬기는 자에게 형통함이 있다.
 - 특히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자에게는 특별한 은총이 있다.
-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